



# 알기 쉬운 와카 시와 가나 서예

특별전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만든 감상의 길잡이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지닌 독특한 감성과 미의식이 응축된 와카 시, 그리고 일본 고유의 글자인 가나로 쓴 서예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 와카 시(和歌)

중국의 한시와 대비되는 일본의 정형시로, 짧다고 하여 단가(短歌, 단카)라고도 합니다. 5·7·5·7·7의 31글자로 구성하며, 주로 계절과 자연의 아름다움이나 사랑의 감정 등을 노래합니다.

## 36명의 가선 시인

헤이안시대(794-1185) 중기의 시인 후지와라노 킨토(藤原公任, 966-1041)가 편찬한 『삼십육인찬(三十六人撰)』에 선정된 36명의 와카 시인을 말합니다. 후세 사람들은 이들의 모습을 초상화로 많이 남겼고 그 그림들을 ‘가선 시인 그림(歌仙繪)’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특별전에서는 <사타케본 36가선 시인 그림>을 비롯하여, 다타미 자리에 앉은 가선 시인 그림 등 여러 버전의 36가선 시인 그림을 선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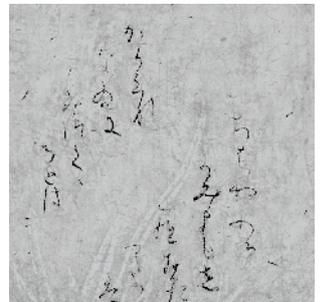
## 일본 고유의 글자, 가나(仮名)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일본말을 기록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대륙에서 들어온 중국의 한자를 글자로 사용했습니다. 이후에 한자의 행서, 초서 등의 형태를 간략하게 변형시켜 일본어 발음을 표기하는 ‘가나(仮名)’라는 글자가 탄생했습니다. 헤이안시대인 10세기 무렵, 공문서 등 정식 문서에는 한자를 썼지만 와카 시, 편지, 일기, 이야기 등을 쓸 때는 가나 문자를 썼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와카 시를 쓸 때는 특히 두루마리, 사각 색지, 휴대용 종이, 부채 등 여러 종류의 종이를 사용했습니다.

한자		현재 쓰는 히라가나
安	→ あ →	あ [아]
以	→ む →	い [이]
宇	→ 字 →	う [우]

## 가나로 쓴 서예

헤이안시대 중기 이후로 귀족 사회를 중심으로 한 일본 고유의 문화를 중시하는 국풍 문화가 형성되면서, 곡선을 살린 우아한 가나 글씨체가 탄생했습니다. 흘러면서 이어 쓰는 연면체, 줄을 맞추지 않고 띄엄띄엄 여백을 남기는 흘뜨려 쓰기[지라시 가키] 등의 글씨체에는 붓을 잡은 사람의 감정과 마음이 담겨있습니다.



중요문화재 <무늬 색지에 쓴 와카 시[순쇼안 시키시]>  
“지하야후루(뒷말에 ‘신’을 암시하는 관용어)...”  
기노 쓰라유키 씬으로 전해짐  
헤이안시대 11세기 교토국립 박물관 소장

## 가나 서예 감상과 <사타케본 36가선 시인 그림>

무로마치시대(1392-1573)에 이르러 다도가 유행하면서부터 그 이전 시대에 쓰인 훌륭한 가나 서예 작품은 두루마리 형태에서 변형되어 벽에 걸 수 있는 길이의 족자나 책 형태의 모음집 등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또한 다도 자리에서 감상하는 족자(오른쪽 그림)는 그림이나 글씨뿐만 아니라 테두리 장식인 장황 또한 감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날장으로 나뉜 <사타케본 36가선 시인 그림>은 각각의 소장자의 손에 들어간 후 각자의 취향에 맞게 장황되어 다도 자리에서 선보여졌습니다. 가선 시인들의 와카 시, 초상화뿐만 아니라 특별한 장황 장식도 함께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